



수학과 소식지



발행인 : 수학과장 조수진

발행일자 : 2016.9.08

편집 : 김민송, 길도영



 **아주대학교 수학과**
Department Of Mathematics

출처 : 수학과 홍보영상

<차례>

1. 학사 일정, 세미나 일정
2. 2016년 1학기 행사
3. 학과 소식
 - 수학과 마라톤
 - 데이터 경진대회
 - 수학과 교과목 설명회
 - 수학과 홈페이지 개편, 수학과방 리모델링
4. 현장실습 후기
5. 학석사 연계과정 소개
6. 교환학생 후기
7. 문남식 교수님 인터뷰
8. PRIME 사업에 대한 의견
9. EVENT

학사 일정, 세미나 일정

학사 일정

2016. 09. 08	수학과 개강 총회
2016. 09. 06~07	수강 정정
2016. 09. 22~23	수강신청 포기
2016. 09. 28	2학기 수업일수 1/4 선
2016. 10. 20~26	2학기 중간시험
2016. 10. 26	2학기 수업일수 1/2 선
2016. 10. 27	날개달린 수학
2016. 10. 29~30	수학과 MT
2016. 11. 23	2학기 수업일수 3/4 선
2016. 12. 01~26	2학기 강의평가 기간
2016. 12. 15~21	2학기 기말시험

수학과 강연회 일정

날짜	연사	소속	강연 제목
09. 09	Ling Sa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Quasi-Cyclic Codes
09. 23	하승열	서울대학교 수학과	Mathematical Challenges for classical and quantum synchronization
10. 07	전영목	아주대학교 수학과	Hybrid difference methods for PDEs
10. 27	"날개달린 수학"		
	조현숙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보안의 패러다임 변화
11. 11	최윤성	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	Bishop-Phelps Theorem and its latest developments
11. 18	오세진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Categorification and Crystals
12. 02	박의성	고려대학교 수학과	Regularity and multiseant lines of projective varieties

- ◆ 시간 : 오후 5:00 PM - 6:00 PM
- ◆ 장소 : 팔달관 621호
- ◆ 문의 : 박보람(borampark@ajou.ac.kr, 031-219-2561)

수학과 행사



2016.03.10 수학과 2학기 개강 총회



2016.04.28 날개달린 수학



2016.04.08 콜로퀴움



2016.05.11 산업수학 세미나



2016.05.20 콜로퀴움



2016.05.18 산업수학 세미나



2016.06.01 아주희망 진로특강



2016.06.02 하계 인턴, 대학원 설명회





2016.06.22 산업수학 프로젝트 성과 발표회



2016.03.20 수학과 MT

수학과 마라톤



지난 5월 동기가 같이 마라톤을 하러 가자고 하여 선배님, 그리고 동기들과 함께 참가하게 되었다.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리는 환경페스티벌 환경마라톤 대회였다. 10Km코스와 5Km 코스 중 원하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나는 마라톤을 해본 적이 없어서 5Km 코스를 뛰게 되었다. 학교 주변에 사는 친구들은 아침 일찍 학교 앞에 모여 서울로 출발을 하였고 서울 주변에 사는 친구들은 약속시간에 맞춰서 약속 장소인 평화광장에서 모였다. 평화광장에 가니 마라톤을 뛰러 온 수학과 16 이재협 가족들부터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10Km코스를 뛰는 사람들이 먼저 출발을 한 후 5Km 코스가 출발했는데 2.5Km 거리의 반환점을 돌아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식이었다. 처음 출발을 했을 때는 괜찮았지만 2Km 정도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힘이 들었다. 중간에 뛰던 것을 멈추고 걸어가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고 뛰어 30분 정도의 기록으로 완주할 수 있었다. 내가 완주하고 얼마 되지 않아 10Km 코스를 완주하신 분들이 하나 둘 들어왔다. 이를 보니 체력이 좋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였지만 5Km를 다 뛰지도 못하고 힘들어 했던 것을 생각해보니 평소 운동을 자주 해서 체력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학과 16 백현규

2016년 5월 14일 (토) 상암동에서 열리는 환경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마라톤을 매년 참가하시는 영수형의 권유로 16학번 동기들과 단체로 신청을 했었다. 작년에 마라톤을 참가해 본 경험이 있지만, 대학교 입학 후 운동을 소홀히 해서 5km코스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동기들은 5km코스를 선택하였고 영수형은 10km코스를 선택하였다. 마라톤 경기장을 처음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참가자가 많지 않았다. 그리고 10km참가자가 먼저 출발하였는데, 5km참가자들이 10km참가자에 비해서 훨씬 적었다. 그래서 '아, 열심히 뛰면 좋은 성적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뛰 생각을 하였다. 10km참가자들이 출발하고 5분 뒤에 출발을 하였는데 날씨는 덥고 오르막길이 많아서 체력 관리가 정말 힘들었다. 출발한지 몇 분 만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얼른 뛰고 쉬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뛰었더니 2등으로 들어왔다. 들어오자마자 기념사진을 찍고 기록증과 먹거리를 챙기고 동기들을 기다렸다. 같이 참가한 동기들도 좋은 기록으로 들어오고, 그늘에서 쉬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잡담을 나누면서 마라톤이 마무리하는 것을 기다렸다. 시상식을 하였는데 아쉽게도 5km는 시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기들과 함께 고생하고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경험이었다.



데이터 경진대회



수학과 15 김영웅

"영웅학생, 데이터 경진대회 나가볼래요?" 평소에 잘해주시던 정교진 교수님께서 제안하셨다. 1학년 성적 중 유일하게 멀쩡한 성적이던 '수학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내가 잘 해주었다고 판단하셔서 제안했다고 하셨다. 2박4일(1박2일 두 번)동안 숙식도 제공해주고 수업도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참가하였다. 숙식을 제공해주지만 잠잘 시간을 안 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 곳 수업이 12시에도 한창 진행중이었던 그 후의 이야기이다. 첫째 날에는 먼저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다. 중간에 외국에서 열리는 데이터 경진대회에 참가한 한 팀의 과정을 시각화한 것을 보았다. 대회 주제는 집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때 뉴욕에 있는 집인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집인지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집들을 알갱이로 표현해서 프로그램을 거치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를 뜻하는 바구니로 떨어지는 것처럼 시각화했다. 프로그램에 집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 중 중요한 것을 뽑아내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 원하는 바구니로 떨어지도록 설정했는데 거의 다 자기위치로 들어갔다. 나도 대회 마지막 날에는 저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실력을 얻을지 아니면 시간만 버리다가 집에 가게 될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학교에서의 수업을 마치고 연수원으로 갔다. 숙소는 엄청 좋았다. 하지만 바로 수업이 더 있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보지도 못하고 숙소를 떠났다. 수업이 끝나고 침대로 돌아온 시간은 새벽3시쯤 이었다. 1박2일에서 1박은 2일의 일정이 끝난 후 잠깐 잘 수 있는 것을 의미했고 이렇게 대회의 반이 마무리 되었다. 일주일의 지나고 대회 셋째 날에는 학교에서 약간의 수업을 듣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다. 주제는 몇 년 동안의 KBL(한국 농구 리그) 경기 결과를 주었을 때 그 다음해의 결과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다. 둘째 날에는 모두들 수업이 빨리 끝나고 자고 싶어 했다면 셋째 날부터 넷째 날에 이르는 밤과 새벽에는 강사님께서 지금까지 만든 것이면 충분하다고 잠을 자라고 부탁하실 정도로 모두 열정적이었다. 잘생기고 예쁜 선배님들은 점점 초췌해지셨지만 눈은 불타고 있었다. 새벽6시 넘어서까지 다들 안자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우리 팀 선배님들께서 조금 더 노력하셨는지 교수님들께서 우리 팀의 완성도가 조금 더 높다고 판단하셨고 우승하게 되었다. 2박4일 동안 잠을 못 잤지만 그만큼 더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느껴질 만큼 강사님께서 내용을 알차게 준비해주셨다. 다음대회가 있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들로 구성될 것을 알기에 이 글을 읽게 되는 학생들이 많이 참가했으면 좋겠다.



수학과 교과목 설명회



최근 수학과 전공교과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학년 대상 전공 기초 과목으로 '대화형 프로그래밍'이 2학기에 신설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1학년 전공필수였던 '수학프로그래밍'은 2학년 전공으로 옮겨졌습니다. 수학 필수과목의 강화로 '선형대수'와 '해석개론'과목의 연습시간이 신설되었고 이로 인해 '선형대수'는 3학점에서 4학점으로 늘어났습니다. 산업수학 관련과목으로 '산업수학 모델링기초'와 '이산 모델링기초'가 각각 2015학년도 2학기, 2016학년도 1학기에 신설 되었습니다. 16학번부터는 캡스톤디자인(프로젝트) 과목을 하나이상 들어야 졸업이 가능하게 바뀌었는데 '산업수학 프로젝트 1,2', '현대수학세미나', '통계자료분석 및 실습'이 있습니다.

수학과 홈페이지 개편 및 수학과방 리모델링



(수학과 홈페이지 개편)

- 수학과 홍보영상 추가, 소학회 소식 개편
- 앞으로 새로운 소식 추가 예정
- 원하는 개선사항 학생회장에게 알려주면 반영 가능

★홈페이지에 많은 접속 바랍니다.★



(수학과방 리모델링)

- 휴식공간 확장
- 청소기, 담요, 우산꽂이 구비

현장실습 후기



수학과 14 고선혜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 2016.7.1~ 2016.8.25일까지 두 달간 자스텍M이라는 회사에서 인턴 실습을 했습니다.

우선 자스텍M이라는 회사는 차량용 IoT를 개발하고 그 펌웨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두 달간 서비스 홈페이지 제작과 차량 데이터 분석 업무를 주로 맡아서 했고, 이어 회사의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도 수행 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짧다면 짧았고, 길다고 한다면 길었던 두 달간 제가 인턴 실습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은 업무의 대한 책임감의 중요성과 영어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회사에 도착해서 했던 일이 플래그쉽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현장으로 투입이 되는 작업이어서 상당히 긴장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에서는 아무리 작은 업무라도 바로 현장으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항상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영어는 많은 곳에서 쓰인다는 것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인턴을 하면서 몸소 더 절실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코딩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데이터를 분석 한 후, 영문화 번역을 하는 부분, 또 회사에서 다음 달에 미국에서 있을 Tech crunch에 참여 하게 되는데 그 때 설명하게 될 서비스 및 기술의 설명을 대본으로 만드는 것, 하다못해 자료를 조사함에 있어서도 웬만한 자료들은 보통 영어로 되어있었던 것 등등 어떤 한 가지도 영어를 쓰지 않는 것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회사에서 인턴을 하면서 학교에서 경험 할 수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사회생활도 조금씩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생활이라고 거창하게 말했지만 이 말의 핵심 의미는 내가 이 업무를 대하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움은 실제로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과는 정말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이번 여름방학 때 하게 된 인턴실습은 조금이나마 절 성장시켜주었고, 또한 제 진로의 한 부분에 있어 도움을 많이 주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학석사 연계과정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학석사 연계과정을 통해서 대학원에 입학하게 10학번 강성식입니다. 일단 학석사 연계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석사 연계과정은 학사와 석사를 5년 안에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학사는 3~3.5년 안에 졸업하고 석사는 1.5년 안에 졸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졸업할 때 평점 3.75를 넘어야하고 졸업학점을 취득하여야만 합니다. 이제 장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장점은 석사 까지 취득하는데 5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원래 대학원은 학문의 깊이를 깊게 공부하는 곳 이라서 모순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취업준비를 해서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동안 석사를 취득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5년에 학사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5년에 석사면 좋은 조건입니다. 또한, 입학금과 전형료를 면제시켜줍니다. 입학금이 약100만 원 정도 됩니다. 또한, 장학금 배정시 우선배정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친절함(?)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학사 때의 공부보다는 확실히 힘든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점, 다른 단점은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글을 보는 학생들과 다름 없이 학교생활을 해왔습니다. 대학원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나, 취업을 막무가내로 하는 건 불확실한 미래에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분명 미래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석사를 취득한다고 해서 자신만의 능력이 생긴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시간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사보단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하고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해도 1.5년은 짧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번째 학생이라고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신청해서 좋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급하게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일 : matherr@ajou.ac.kr)

학·석사연계과정이란?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연계, 학사 및 석사과정 수업연한을 단축(학사3.5(3.0)년+석사1.5년 졸업)하여 4.5~5년 내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학사제도로 지원자격은 누계평점평균이 3.3이상인 4학기에서 7학기에 재학 중인 자로 학사과정 조기 졸업 예정자이다. 누계평점평균이 3.3이상 3.75 미만일 경우 대학원 1학기 등록을 반드시 필해야한다(등록을 취소할 경우 조기졸업이 취소된다). 학부 지도교수 또는 전공 주임교수 추천 및 대학원 지원학과 의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추천을 받아 지원 하여야 한다. 특전은 대학원 입학 시 무시험 특별전형, 입학금 면제, 대학원 학과별 장학금 배정 시 우선 고려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를 참고.

교환학생 후기



수학과 12 손주형

저는 2016-1학기에 프랑스 Bordeaux에 위치한 INSEEC에 교환학생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Bordeaux는 프랑스 남부 Aquitaine 지역에 주도로 따뜻한 날씨가 특징인 곳입니다. INSEEC은 총Paris, Bordeaux, Lyon 3개의 캠퍼스가 있어 원하는 곳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크게 제 1대학 같은 국립대와 INSEEC 같은 사립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립대는 보통 불어를 요구해 파견이 힘들고 사립대학은 불어를 요구하지 않는 곳이 있지만 보통은

단과대학입니다. INSEEC은 그 중에서 Business School 이었고 수업은 경영과 와인에 관련한 수업만 열렸습니다. 사실 저는 경영을 전공하지도 않아서 수업은 대부분 어려웠고 관심도 안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와인수업은 너무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INSEEC이 비즈니스 학교인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지원한 제 잘못이 큼니다. 보통 교환학생 지원학교를 고를 때 1 혹은 2지방 학교가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몇 개의 학교만 알아보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나 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지원하는 학교가 대략 어떤 학교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 선택에 있어 중요시해야 할 것은 그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보다 그 학교가 위치한 도시가 어떠한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환학생이면 공부보다는 외국인 친구들과 그 곳의 문화에 더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얻고 오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살지를 생각하고 학교를 정하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환학생 가기 전 준비해야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입니다. 프랑스를 가던 독일을 가던 영어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막상 해외로 가게 되면 영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대화를 하는데도 일상에서 쓰이는 단어가 생각이 나지않고 특히 구어체에서 쓰이는 단어, 숙어는 잘 배우지 않기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영어를 말하지 않는 환경에서 대부분을 살아왔다면 영어학원에서 대화식 수업을 몇 개월만이라도 꼭 듣고 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느낀 건 집입니다. 저는 파견학교에서 추천 기숙사 리스트를 받았지만 좀 비싸기도 하고 저는 예전부터 유럽의 100년 넘은 옛 집에서 살아보고 싶은 로망이 있어서 홈스테이를 구했습니다. 제 홈스테이에는 집주인이신 혼자 사시는 할머니와 다른 프랑스 학생과 직장인 3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는 다 불어밖에 하지 못하는 프랑스인이었고 그래서 대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집이다 보니 안좋은 것도 많긴 했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기도 했고 심심하기도 했던 게 많이 생각합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차라리 기숙사나 다른 외국인과 홈쉐어를 하는 게 나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이 세가지를 준비했다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전에 INSEEC 파견자가 없고 아주대에서 혼자가는 데다 INSEEC에 한국인이 저를 포함해 2명뿐이라 준비가 더 힘들었습니다. 전에 그 학교나 그 도시에 갔던 학생, 아니면 그 학교 또는 도시에 온 아주대에 있는 교환학생과 친해지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교환학생 기억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강 따라서 하던 조깅, 거리를 걷던 것, 매일 와인을 꼭 한 병씩 마신 거와 같은 그 도시에서의 삶입니다. 여행도 많이 가고 했지만 저에겐 Bordeaux라는 도시가 가장 기억에 남은 교환학생이었고 교환학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내가 어디에 가서 뭘 할지를 준비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문남식 교수님 인터뷰

이번 학기 수학과에 새로 오신 문남식 교수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문남식 교수님은 산학협력 중점 교수님으로 현재 수학과 과목인 수학 프로그래밍, 산업수학 프로젝트1을 맡고 계십니다.

1. 아주대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수학을 전공하고 오랜 기간 동안 금융산업 등에서 종사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수학의 활용 분야를 찾아 취업하고 또한 향후 산업수학인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교 수학과는 학부교과 과정을 산업수학친화적으로 개편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현장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수학적 기초가 탄탄한 산업수학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연구와 취업률 제고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2. 수학과 졸업 후 산업경영학과 박사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저는 학부와 석사과정에서 수학을 전공한 후 산업경영학으로 전공을 바꾸었습니다. 그 무렵 우연히 주식과 자본시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강한 편이였고, 이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결국 진학으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하하~ 아무튼 그 결과 많이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금융권에서도 일 하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예, 제가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의 상당부분이 금융권입니다. 그 동안 수행한 업무 중 몇 가지를 들자면, 자산운용(일명, 펀드 매니저), 금융상품 개발, 고객자산관리, 금융기관 리스크관리 등입니다. 주로 수학적 사고나 모형이 많이 활용되는 분야들이라 하겠습니다.

4. 이번 산업수학프로젝트 과목에서 "펀드시장의 동향분석"에 대해 연구하신다 하셨는데 어떤건지 대략 설명해주세요.

사실 동 과목이 갖는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실제 금융시장을 경험해보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시장의 미시구조(market microstructure)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는 아직 아닙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각자의 자산관리가 필요한데, 우선 일차적 목표를 이룬 기초지식을 습득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 중에 관련 자격증 취득도 생각해보고, 또 나아가 취업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참여 학생들과 논의하여 전체적인 방향을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 수학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은 무엇인가요?

우선 학생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대화를 해보는 것이 먼저이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생

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찾아보고 싶군요.

다만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순수수학은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잠재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경쟁력은 아니겠죠. 그런데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를 갖고 그 활용방안을 찾아 나선다면 산업 현장에서 매우 유용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PRIME 사업에 대한 의견

지난 3월 이야기가 나온 **PRIME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궁금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구글독스를 통하여 익명으로 설문 이 이루어졌고 카카오톡으로 설문을 공지하였습니다.

프라임사업은 사회수요 중심의 학과개편, 정원조정과 사회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혁신 등 학생 진로 역량 강화, 지역사회에서 대학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3월 아주대는 프라임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학과를 포함한 일부 학과의 정원감축 또는 통·폐합을 통한 ‘Data 관련 융합학부’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아주대학교 수학과 학생으로서 그 당시 프라임사업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두 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써주세요.

다음은 설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안입니다. 비형식적인 표현은 편집인이 순화하여 같은 의미를 지니도록 유지하며 바꾸었습니다.

<답안>

- 수학과 인원의 감소나 그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다른 과로 통합한다는 것이 수학과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좋지 않았습니다.
- 진짜 기분이 안 좋았다. 돈을 내고 공부하러 왔는데 취업으로 강요받는 느낌이었다.
- 당황스러웠다.
- 좋지 뭐.. 데이터 관련 융합학부면 요즘 주목받는 과인데, 학사나 박사도 많이 필요하니 고급 인재도 많이 만들 수 있고.
- 딱히 이득이 없이 돈 많이 드는 사업
- 저는 찬성입니다. 선배들이나 친구들을 보았을 때 대학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거의 취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수학과보다는 data관련 융합학부가 더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프라임사업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내용이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진행한 점에서 불만이 많다.
- 소속 학과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사안인 만큼 먼저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공지를 하고 학생도 함께 논의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 프라임사업은 수학과 학생들의 꿈과 진로, 가치관을 막는 매우 좋지 않은 사업입니다. 절대 실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 학과 통폐합은 과의 고유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반대합니다.
-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학교측의 일방적인 통보라는 느낌을 받았다.
- 당시 사업에 대해 사전 홍보나 설명도 거의 없었고, 너무 일방적인 학교측의 통보 같은 느낌이였다.
- 수학과 전공과목 개설 인원수 조건을 완화해준다면 괜찮음. 또한 학내 구성원이 만장일치 합의 조건하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함.
- 학생들에게 통보한 프라임사업 사건 이후로 아주대학교에 대한 애착이 모두 사라졌다. 학생들에게 단 일말의 언급, 상의조차 없이 시행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 프라임사업이 진행된다 해도 자신이 원해 정해놓은 진로를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아니 그걸 왜 수학과인 저희의 의견도 묻지 않고 학교 측에서 막 결정 하는거예요? 그렇게 학교인가요?
- 대학이 기업으로 바뀔 것 같은 느낌
- 감축이 되다보면 언젠가 수학과가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가 든다.
- 수학과 심화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수업 수강인원이 적어 전공과목이 폐강하는 점이 우려됩니다. 또한 이 사업자체에 대한 학생들과 학교 측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습니다.
- 무엇을 위한 프라임 사업인가
- 수학과가 단순히 취업 때문에 통폐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 사업의도에 좋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말을 안 해주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EVENT

각 문제당 선착순 1명, 추천을 통해 1명, 총 두 명씩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단, 기한은 9월 1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출 : rlfehdud@ajou.ac.kr)

메일 보내는 형식 : 학번, 이름, 문제번호, 답안 (1번 : 옮겨지는 성냥을 표시한 그림 한 장과 정답 그림 한 장 총 두 장을 제출, 2번 : 다 채워진 스토쿠 제출)

*** 두 문제 중 한 문제만 지원 가능 !**

당첨자 발표는 9월 13일 수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8	7		4	3		
	1			6			2	
	2			5			1	
		3	4		8	7		
				9				
	6			3			5	
		9	6		2	8		

♡신입 편집부원 모집♡

제 4회부터 소식지를 함께 만들 신입 편집부원을 모집합니다.

대상 : 현재 3,4,5학기 째 다니고 있는 학부생

조건 : 앞으로 1년 이상 편집부원으로 활동하는 성실함

하는 일 : 수학과 행사에 참여하여 사진을 찍고 소식을 모아 매 학기에 해당하는 소식지를 작성

혜택 : 면학장학의 일종으로 면학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학과의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음

지원방법 : 수학과 사무실(팔달관 319호)에 지원서 제출
(지원서 및 세부사항은 수학과 홈페이지 참고)

기한 : 9.12 까지

MEMO